

대한정형물리치료학회지 1998.

제4권 제1호.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thopaedic Manual Physical Therapy

1998. Vol. 4, No.1.

O.M.P.T. 강사들의 정형물리치료 교육효과에 대한 조사

김천대학 물리치료과*

김근조*

I. 서 론

물리치료는 임상에서 환자 및 장애인에게 재활을 목적으로 물리적인 요인을 사용하여 환자와 장애인을 최대로 복구시키는 치료의 개념이다. 이와 같은 물리치료는 운동, 전기, 광선, 수치료 그리고 도수를 이용한 치료법 등 여러분야가 서로의 특색에 맞게 구성되어 환자치료에 현재 임하고 있다.

이중 운동치료의 분야는 그 동안은 일반적으로 Physiological한 요인을 이용하여 치료에 임하였으나 90년대에 이르러 운동치료의 분야는 커다란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신경계통의 운동치료와 정형계통의 운동치료로써 크게 두 개의 분야로 나뉘기 시작하여 이들이 각기의 특성에 맞는 많은 종류의 새로운 치료의 개념이 외국으로부터 도입되어 임상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물리치료사들은 새로운 치료의 기법을 재교육과 재훈련을 통하여 배우고 이를 임상의 환자와 장애인에게 적용하여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써 새롭게 물리치료사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치료기술 중 정형의학계통에서는 1992년 도수를 이용하는 '정형물리치료 (O.M.P.T.)'의 기술이 도입과 더불어 최근 2년 전부터 이 기술을 전국의 물리치료사들에게 강의와 실습을 통하여 널리 보급하기에 이르렀고, 또한 임상에서 새로운 치료의 개념으로 정착되어짐과 더불

어 각 대학의 정규의 교육과정으로 채택되어 이미 각 대학에서 교육과 실습에 임하는 형편이다.

이와같은 정형물리치료는 최근의 수년사이 회원의 수가 증가되어 1998년 7월말 현재로 1000여명의 회원이 등록되어 이들은 정형물리치료 프로그램에 따라 각 과정과 코스의 이수로써 강의와 실습을 통하여 임상의 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자기의 개발을 통하여 더불어 현재의 경제난국인 I.M.F. 체제를 슬기롭게 이겨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본조사의 목적은 1998년 상반기인 1월부터 6월까지 정형물리치료 회원들이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강의와 실습을 받은바, 이들에 대한 교육의 효과와 신뢰성을 조사하고 이결과를 기초로 내년도 예정인 교육프로그램에 활용하고 또한 개선을하여 한층더 보다 정형물리치료의 교육이 효과적으로 수행 되도록함이 목적이다.

II. 조사방법

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1998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전국의 14개소의 교육지역에서, 11명의 교육강사와 실습강사가 기본과정과 증급과정으로 분류하고, 이를 다시 7개의 각 코스로 분류하여 각 과정의 코스를 강의와 실습을 받는 교육과정의 정형물리치료의 회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를 회원들에게 강의후 평가지를 300매를 회수하여 조사하였다.

2.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각단계의 코스별 정형물리치료 교재에 참가되어있는 평가지를 강의후 회원들이 직접 작성한 300장을 회수하여 SPSS/PC를 사용하여 각변수별 분포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각변수에 따른 χ^2 -test, t-test를 실시하였다.

3. 조사의 제한점

조사의 제한점으로는 평가지의 회수가 전 강사가 참여치 않았고, 회수의 지역이 전국적이지 않았으며 교육의 단계별과 코스가 고르게 분포하지 못하였다. 또한 설문의 응답이 미기록 상태가 있었다.

III. 조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표 1-1)조사의 참여지역과 설문지 수거율 분포

지 역	수거매수. (%)	지 역	수거매수(%)
1. 서 울	66(22.0)	8. 부 산	13(4.3)
2. 전 주	.	9. 진 주	.
3. 대 구	.	10. 성 남	.
4. 경 남	.	11. 원 주	25(8.3)
5. 대 전	13(4.3)	12. 강 릉	85(28.3)
6. 울 산	.	13. 서 산	45(15.0)
7. 인 천	.	14. 광 주	53(17.7)
Total			300(100.0)

표 1-2) 조사참여 강사 분포

강 사 명	수거매수(%)	강 사 명	수거매수(%)
1. 박홍기	60 (20.0%)	2. 박지환	104 (34.7%)
3. 김영민	91 (30.0%)	4. 김선엽	.
5. 황성수	.	6. 김호봉	13 (4.3%)
7. 허진강	.	8. 김광수	.
9. 권혁수	.	10. 김근조	32 (10.7%)
11. X-Ray	.		
Total.			300 (100%)

본조사의 참여지역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전국의 14개 시.도 중 7개 지역이었다. 그리고 평가지의 수거 매수는 300장 이었다 (표 1-1).

표 1-1) 과 같이 본조사의 참여율은 7개의 지역이었으며 이들중 강릉85 (28.3%), 서울66 (22.0%), 광주53 (17.7%) 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본조사의 참여 과정은 기본과정 287(95.7%), 중급과정 13(4.3%)로 나타났으며, 각코스별로는 A.B.C.D.E.F.S. 등 7개의 코스중 A코스 254(84.7%), C코스 13(4.3%), F코스 33(11.0%)의 3개의 코스가 참여하였다.

본조사에 참여한 강사는 전체 11명의 강사중 5명의 강사가 조사에 참여하였다(표 1-2).

표 1-2) 와 같이 조사에 참여한 강사는 박지환 강사 104(34.7%), 김영민강사 91(30.0%), 박홍기강사 60(20.0%)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형물리치료 교육후 설문에 참여한 회원의 남여별 분포는 아래표와 같이 남자회원 92(30.7%), 여자회원 156(52.0%), 그리고 미기재 52(17.3%)로 나타났다(표 1-3).

표 1-3) 조사대상 회원의 남.여별 분포

성별	수거매수 (%)
남	92 (30.7)
여	156 (52.0)
미기재	52 (17.3)
Total	300 (100)

교육후 본조사의 참여한 회원의 연령별 분포는 아래표와 같이 25세이하 80(26.7%), 26-30세 109(36.3%), 31-35세 28(9.3%), 36-40세 10(3.3%), 41세이상 7(2.4%)로 나타났다(표 1-4).

정형물리치료 교육후 설문에 참여한 회원들의 근무처의 분포는 아래의 표와같이 의원급 143(47.7%), 병원급 39(13.0%), 종합.대학병원급 22(7.3%), 기타 7(2.3%)로 나타났다(표 1-5).

정형물리치료 교육후 설문에 참여한 회원들의 근무기간의 분포는 5년이하 160(53.3%), 6-10년 42(14.0%), 11-15년 12(4.0%), 15년이상 5(1.6%)으로 나타났다(표 1-6).

표 1-4) 조사대상 회원의 연령별 분포

연령	수거매수 (%)
· ≤ 25	80 (26.7)
26 - 30	109 (36.3)
31 - 35	28 (9.3)
36 - 40	10 (3.3)
41 ≤ ·	7 (2.4)
미기재	99 (22.0)
Total	300 (100)

표 1-5) 조사대상 회원의 근무처 분포

근무처	수거매수 (%)
의원급	143 (47.7)
병원급	39 (13.0)
종합. 대학병원급	22 (7.3)
기타	7 (2.3)
미기재	89 (29.7)
Total	300 (100)

*기타 : 보건소, 학교

표 1-6) 조사대상 회원의 근무연수 분포

근무연수	수거매수 (%)
· ≤ 5	160(53.3)
6 - 10	42(14.0)
11 - 15	12(4.0)
16 ≤ ·	5(1.6)
미기재	81(27.0)
Total	300(100)

2. 강의 만족도에 대하여

정형물리치료 교육후 '강의만족도'에 대한 간접적인 질문항으로 회원들에게 설문를 문2)항의 '강사진의 강의준비가 적절한가?'와 문3)항의 '강사 교수법은 적절한가?'에 대한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표 2-1).

표 2-1) 과 같이 '강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 문2)항의 '강사진의 강의준비성'에 대한 항목은 '잘되었다' 163(54.3%), '보통이다' 90(30.0%), '매우 잘되었다' 41(13.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3)항의 '강사의 교수법'에 대한 항목에서는 '잘되었다' 164(54.7%), '보통이다' 90(30.0%), '매우잘되었다' 30(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의 만족도에서 '지역'과 '강사진의 강의준비성'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아래와 같이 매우 유의하였다(표 2-2).

표 2-1) 강의 만족도에 대한 분포

문 항	강사진의 강의 준비성 (%)	강사의 교수법 (%)
① 매우 잘되었다	41 (13.7)	30 (10.0)
② 잘되었다	163 (54.3)	164 (54.7)
③ 보통이다	90 (30.0)	90 (30.0)
④ 안되었다	5 (1.7)	15 (5.0)
⑤ 매우 안되었다	.	1 (0.3)
미기재	1 (0.3)	.
Total	300 (100)	300 (100)

표 2-2) 지역과 강사진의 강의준비성에 대한 분포

지 역	매우잘됨(%)	잘됨(%)	보통(%)	안됨(%)	매우안됨(%)	미기재(%)	Total
1. 서울	6(9.1)	41(62.1)	18(27.3)	1(0.5)	.	.	66(22.0)
2. 대전	3(23.1)	9(69.2)	1(7.7)	.	.	.	13(4.3)
3. 부산	2(15.4)	8(61.5)	3(23.1)	.	.	.	13(4.3)
4. 원주	9(36.0)	15(60.0)	1(4.0)	.	.	.	25(8.3)
5. 강릉	16(18.8)	49(57.6)	18(21.2)	1(1.2)	1(1.2)	.	85(28.3)
6. 서산	2(4.4)	23(51.1)	19(42.2)	1(2.2)	.	.	45(15.0)
7. 광주	3(5.7)	18(34.0)	30(56.6)	2(3.8)	.	.	53(17.7)
Total	41(13.7)	163(54.3)	90(30.0)	5(1.7)	1(0.3)	300(100)	

*** : P<0.001

Chi-Square D.F. Significance Min E.F.

53.90870 24 0.0004 0.043

표 2-3) 강사와 강사진의 강의준비성에 대한 분포

강 사	매우잘됨(%)	잘됨(%)	보통(%)	안됨(%)	매우안됨(%)	미기재(%)	Total
1. 박홍기	10(16.7)	36(60.0)	14(23.3)	.	.	.	60(20.0)
2. 박지환	18(17.3)	65(62.5)	20(19.2)	1(1.0)	.	.	104(34.7)
3. 김영민	11(12.1)	46(50.5)	30(33.0)	3(3.3)	.	1(1.1)	91(30.0)
4. 김호봉	2(15.4)	8(61.5)	3(23.1)	.	.	.	13(4.3)
5. 김근조	.	8(25.0)	23(71.9)	1(3.1)	.	.	32(10.7)
Total	41(13.7)	163(54.3)	90(30.0)	5(1.7)	.	1(0.3)	300(100)

*** : P< 0.001

Chi-Square D.F. Significance Min E.F.

42.80517 16 0.0003 0.043

표 3-1) 강의 이해도에 대한 분포

문 항	강의시간의 적절성(%)	강의난이도의 적절성(%)
① 매우 잘되었다	7 (0.7)	15 (5.0)
② 잘되었다	61 (20.3)	134 (44.7)
③ 보통이다	190 (63.3)	122 (40.7)
④ 안되었다	43 (14.3)	28 (9.3)
⑤ 매우 안되었다	4 (1.3)	1 (0.3)
Total	300 (100)	300 (100)

표 3-2) 강사와 강의시간의 적절성에 대한 분포

*

강 사	매우잘됨(%)	잘됨(%)	보통(%)	안됨(%)	매우안됨(%)	Total
1. 박홍기	.	14 (23.3.)	41 (68.3)	5 (8.3)	.	60(20.0)
2. 박지환	.	26 (25.0)	72 (69.2)	5 (4.8)	1(1.0)	104(34.7)
3. 김영민	2 (2.2)	14 (15.4)	50 (54.9)	23 (25.3)	2(2.2)	91(30.3)
4. 김호봉	.	1 (7.7)	10 (76.9)	2 (15.4)	.	13(4.3)
5. 김근조	.	6 (18.8)	17 (53.1)	8 (25.0)	1(3.1)	32(10.7)
Total	2 (0.7)	61 (20.3)	190 (63.3)	43 (14.3)	4(1.3)	300(100)

* : P< 0.05

Chi-Square	D.F.	Significance	Min E.F.
31.45755	16	0.0118	0.087

표 3-3) 코스와 강의난이도의 적절성에 대한 분포

*

코 스	매우잘됨(%)	잘됨(%)	보통(%)	안됨(%)	매우안됨(%)	Total
A 코스	12 (4.7)	117 (46.1)	103 (40.6)	21 (8.3)	1 (0.4)	254 (84.7)
C 코스	3 (23.1)	8 (61.5)	2 (15.4)	.	.	13 (4.3)
F 코스	.	9 (27.3)	17 (51.5)	7 (21.2)	.	33 (11.0)
Total	15 (5.0)	134 (44.7)	122 (40.7)	28 (9.3)	1 (0.3)	300 (100)

** : P< 0.01

Chi-Square	D.F.	Significance	Min E.F.
23.05104	8	0.0033	0.043

강의의 만족도에서 ‘강사’와 ‘강사진의 강의준비성’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아래와 같이 매우 유의하였다(표 2-3).

3. 강의 이해도에 대하여

정형물리치료 교육후 ‘강의 이해도’에 대한 간접적인 설문을 회원들에게 조사한 결과 문1)항인 ‘강의시간의 적절성’과 문5)항인 ‘강의 난이도의 적절성’에 대한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표 3-1).

강의 이해도에 대한 조사중 문1)항인 ‘강의시간의 적절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보통이다’ 190(63.3%), ‘잘되었다’ 61(20.3%), ‘안되었다’ 43(14.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5)항인 ‘강의 난이도의 적절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잘되었다’ 134(44.7%), ‘보통이다’ 122(40.7%), ‘안되었다’ 28(9.3%)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의 이해도에 대한 조사에서 ‘강사’와 ‘강의시간의 적절성’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유의하였다(표 3-2).

또한 강의 이해도에 대한 조사중 ‘코스’와 ‘강의난이도의 적절성’과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유의하였다(표 3-3).

4. 강사의 만족도에 대하여

정형물리치료 교육후 ‘강사의 만족도’에 대한 간접적인 설문을 회원들에게 조사한 결과 문4)항인 ‘강사의 열의도’와 문7)항인 ‘강의교재의 적합성’에 대한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표 4-1).

표 4-1) 강사의 만족도에 대한 분포

문 항	강사의 열의도(%)	강의교재의 적합성(%)
① 매우 잘되었다	30 (10.0)	20 (6.7)
② 잘되었다	164 (54.7)	178 (59.3)
③ 보통이다	90 (30.0)	96 (32.0)
④ 안되었다	15 (5.0)	3 (1.0)
⑤ 매우 안되었다	1 (0.3)	1 (0.3)
미기재	.	2 (0.7)
Total	300 (100)	300 (100)

강사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중 문4)항의 ‘강사의 열의도’에 대한 설문에서는 ‘잘되었다’ 164(54.7%), ‘보통이다’ 90(30.0%), ‘매우 잘되었다’ 30(10.1%)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문7)항의 ‘강의교재의 적합성’에 대한 분포는 ‘잘되었다’ 178(59.3%), ‘보통이다’ 96(32.0%)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의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 ‘성별’과 ‘강사의 열의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유의하였다(표 4-2).

강사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 ‘강사’와 ‘강의교재의 적합성’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유의하였다(표 4-3).

5. 강의환경에 대하여

정형물리치료 교육후 ‘강의 환경’에 대한 간접적인 설문을 회원들에게 조사한 결과 문6)항인 ‘강의환경의 적합성’과 문8)항인 ‘시청각교재의 적절성’에 대한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표 5-1).

강의환경에 대한 조사중 문6)항의 ‘강의 환경의 적합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보통이다’ 152(50.7%), ‘잘되었다’ 83(27.7%), ‘매우 잘되었다와 안되었다’ 29(9.7%)의 순으로 각기 나타났다. 그리고 문8)항의 ‘시청각교재의 적절성’에 대한 분포는 ‘잘되었다’ 163(54.3%), ‘보통이다’ 85(28.3%), ‘매우 잘되었디’ 30(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강의환경에 대한 조사에서 ‘지역’과 ‘시청각교재 적합성’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아래의 표와 같이 유의하였다(표 5-2).

표4-2) 성별과 강사의 열의도에 대한 분포

**

성별	매우잘됨(%)	잘됨(%)	보통(%)	안됨(%)	매우안됨(%)	Total
남	39 (42.4)	45 (48.9)	8 (8.7)	.	.	92 (30.7)
여	32 (20.5)	104 (66.7)	20 (12.8)	.	.	156 (52.0)
미기재	11 (21.2)	37 (71.2)	4 (7.7)	.	.	52 (17.3)
Total	82 (27.3)	186 (62.0)	32 (10.7)	.	.	300 (100)

** : P< 0.01

Chi-Square	D.F.	Significance	Min E.F.
16.25025	4	0.0027	5.547

표 4-3) 강사와 강의교재의 적합성에 대한 분포

*

강사	매우잘됨(%)	잘됨(%)	보통(%)	안됨(%)	매우안됨(%)	미기재(%)	Total
1. 박홍기	7 (11.7)	39 (65.0)	13 (21.7)	.	.	1 (1.7)	60(20.0)
2. 박지환	3 (2.9)	72 (69.2)	26 (25.0)	3 (2.9)	.	.	104(34.7)
3. 김영민	9 (9.9)	44 (48.4)	36 (39.6)	.	1 (1.1)	1 (1.1)	91(30.3)
4. 김호봉	1 (7.7)	9 (69.2)	3 (23.1)	.	.	.	13(4.3)
5. 김근조	.	14 (43.8)	18 (56.3)	.	.	.	32(10.7)
Total	20 (6.7)	178 (59.3)	96 (32.0)	3 (1.0)	.	1 (0.3)	300(100)

* : P< 0.05

Chi-Square	D.F.	Significance	Min E.F.
34.99234	20	0.0201	0.043

표 5-1) 강의 환경에 대한 분포

문항	강의환경의 적합성(%)	시청각교재의 적절성(%)
① 매우 잘되었다	29 (9.7)	30 (10.0)
② 잘되었다	83 (27.7)	163 (54.3)
③ 보통이다	152 (50.7)	85 (28.3)
④ 안되었다	29 (9.7)	22 (7.3)
⑤ 매우 안되었다	5 (1.7)	.
미기재	2 (0.7)	.
Total	300 (100)	300 (100)

표 5-2) 지역과 시청각교재의 적합성에 대한 분포

*

지 역	매우잘됨(%)	잘 됨(%)	보 통(%)	안 됨(%)	매우안됨(%)	Total
1. 서울	4(6.1)	44(66.7)	15(22.7)	3(4.5)	.	66(22.0)
2. 대전	2(15.4)	9(69.2)	2(15.2)	.	.	13(4.3)
3. 부산	1(7.7)	8(61.5)	4(30.8)	.	.	13(4.3)
4. 원주	4(16.0)	14(56.4)	6(24.0)	1(4.0)	.	25(8.3)
5. 강릉	12(14.0)	47(55.3)	24(28.2)	2(2.4)	.	85(28.3)
6. 서산	3(6.7)	19(42.2)	16(35.6)	7(15.6)	.	45(15.0)
7. 광주	4(7.5)	22(41.5)	18(34.0)	9(17.0)	.	53(17.7)
Total	30(10.0)	163(54.3)	85(28.3)	22(7.3)	.	300(100)

*: P< 0.05

Chi-Square	D.F.	Significance	Min E.F.
29.83096	18	0.0391	0.953

표 6-1) 강의 실용성에 대한 분포

문 항	임상의 도움성(%)	회원의 학습태도(%)
① 매우 잘되었다	32 (10.7)	49 (16.3)
② 잘되었다	140 (46.7)	160 (53.3)
③ 보통이다	100 (33.3)	84 (28.0)
④ 안되었다	2 (0.7)	7 (2.3)
⑤ 매우 안되었다	1 (0.3)	.
미기재	25 (8.3)	.
Total	300 (100)	300 (100)

6. 강의의 실용성에 대하여

정형물리치료 교육후 '강의 실용성'에 대한 간접적인 설문을 회원들에게 조사한 결과 문9)항인 '임상의 도움성'과 문10)항인 '회원의 학습태도'에 대한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표 6-1).

강의 실용성에 대한 조사중 문9)항의 '임상의 도움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잘 되었다' 140(46.7%), '보통이다' 100(33.3%), '매우 잘 되었다' 32(10.7%)의 순으로 각기 나타났다. 그리고 문10)항의 '회원의 학습태도'에 대한 분포는 '잘 되었다' 160(53.3%), '보통이다' 84(28.0%), '매우 잘되었다' 49(16.3%)의 순으로 나타났다.

7. 회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정형물리치료 강의후 회원들에게 의견을 직접 기록하게 한 결과 대다수의 회원이 '미기록'의 상태였고 기록한 의견중에서는 '강사에게 수고의 인사' 17(5.7%)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다음은 '설기위주 강의요구' 8(2.7%), '교육회원의 인원 제한의 폐지', '학회의 정보부족', '강의시간을 탄력적 운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IV. 고찰

정형물리치료의 교육을 임상의 물리치료사들에게 교육을 시작한지 대략 2년여동안 물리치료계에 커다란 변화를 보인 것은 'Manual 치료'의 도입이다. 이는 과거의 일반적인 치료의 방법을 탈피하여 보다 더욱 전문적이며 기술적으로 환자의 치료에 임하여 치료사 자신은 전문인으로써의 긍지와 더불어 치료의 효과가 더욱 증대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많은 물리치료사들이 본교육을 전국적으로 요구하게 되어 '대한정형물리치료학회'에서는 '서울' 이외 '전주', '대구', '경남', '대전', '울산', '인천', '부산', '진주', '성남', '원주', '강릉', '당진', '광주' 등의 전국의 13개의 시.도에서 강의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본조사의 참여 지역은 '서울' 66(22.0%), '대전' 13(4.3%), '부산' 13(4.3%), '원주' 25(8.3%), '강릉' 85(28.3%), '서산' 45(15.0%), '광주' 53(17.7%) 등의 7개 지역에서 참여하였다.

본조사에 참여한 강의수준은 '기초단계' 287(95.7%), '중급단계' 13(4.3%)로써 주로 기초단계의 회원의 의견이 나타났다. 또한 각 단계별 강의코스를 'A코스', 'B코스', 'C코스', 'D코스', 'E코스', 'F코스' 및 'X-Ray' 코스로 이루어졌고, 본조사에 참여한 코스는 'A코스' 254(84.7%), 'C코스' 13(4.3%), 'F코스' 33(11.0%)로써 3개의 코스가 참여하여 많은 의견이 'A코스' 254(84.7%)의 의견이였다.

본교육의 강사진은 12명의 주강사와 실습강사로 구성되어 강의를 실시하며, 본조사에 참여한 강사는 '박홍기' 60(20.0%), '박지환' 104(34.7%), '김영민' 91(30.3%), '김호봉' 13(4.3%), '김근조' 32(10.7%) 등의 5명의 강사가 참여하였다.

본조사의 참여한 학회회원은 1998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동안 강의를 들은 회원중 300명의 회원이 '강의 평가지'를 회수하여 조사하였고, 이 중 '남성' 92(30.7%), '여성' 156(52.0%), '미

기재' 52(17.3%)의 참여로 '여성' 156(52.0%)의 참여가 높음을 알수있었다.

본조사에 참여한 회원의 연령층은 '25세미만' 80(26.7%), '26-30세' 109(36.3%), '31-35세' 28(9.3%), '36-40세' 10(3.3), '41세이상' 7(2.4%), '미기재' 66(22.0%)로 나타나서 '26-30세' 109(36.3%)에서 가장 높은 교육의 열의를 나타냈다.

본조사에 참여한 회원의 근무처는 '의원급' 143(47.7%), '병원급' 39(13.0%), '종합.대학 병원급' 22(7.3%), '기타' 7(2.3%)로써 나타났고, '의원급' 143(47.7%) 근무자들이 교육의 열의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타'의 근무자는 보건소 및 학교의 근무자임이 나타났다.

본조사에 참여한 회원의 임상경력은 '5년미만' 160(53.3%), '6-10년' 42(14.0%), '11-15년' 12(4.0%), '16년이상' 5(1.6%)로써 나타났고, 임상의 경력이 낮은 '5년미만' 160(53.3%)의 경력자가 교육의 열의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조사에 참여한 회원들의 '강의 평가서'의 문항에 대한 응답내용으로써

문 1) 항의 '강의시간의 적절성'에서는 '적절하다' 190(63.3%)로 나타내어 과반수 이상이 강의시간에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짧다' 61(20.3%)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길다' 43(14.3%)이 나타났다.

문 2) 항의 '강사진의 강의준비성'에 대하여는 '잘되었다' 163(54.3%)로 나타내어 과반수 이상이 나타났고, '매우 잘되었다' 까지 포함하면 204(68.0%)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문 3) 항의 '강의 교수법이 내용전달에 적절한가?'에 대하여는 '그렇다' 164(54.7%)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90(30.0%)이 나타나 강의교수법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4) 항의 '강사의 열의성'에 대하여는 '그렇다' 186(62.0%), '매우 그렇다' 82(27.3%)로 각각 나타났다. 그러므로 268(89.3%)이 긍정적인 평가로 나타났다.

문 5) 항의 '강의 난이도와 진행속도가 적절하였나?'에 대하여는 '그렇다' 134(44.7%)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보통이다' 122(40.7%)가 나타나 이들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6) 항의 '강의환경 및 시설'에 대하여는 '보통이다' 152(50.7%)로 나타났고, '매우 좋다'와 '그렇지 않다'가 각각 29(9.7%)로 나타났다.

문 7) 항의 '강의교재가 강의내용과의 적합성'에 대하여는 '그렇다' 178(59.3%)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96(32.0%)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문 8) 항의 '강사의 시청각 자료의 적합한가?'에 대하여는 '그렇다' 163(54.3%)와 '보통이다' 85(28.3%)로 긍정적이었다.

문 9) 항의 '본 코스의 참석후 임상의 도움'에 대하여는 '좋다' 140(46.7%)와 '보통이다' 100(33.3%)로 서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문 10) 항의 자신들의 '회원의 학습태도'에 대하여는 스스로가 '좋다' 160(53.3%)로 나타났고 '보통이다' 84(28.0%)로 나타났다.

V. 결 론

본조사는 정형물리치료 강의를 서울외 6개의 시, 도에서 1998년 1월부터 6월까지 실시후 강의에 대한 평가서를 300매를 수거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강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 '잘되었다' 이상이 '강사진의 강의준비성'에서 204(68.0%)와 '강의교수법'에서 194(64.7%)로 각기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는 '지역과 강사진의 강의준비' 그리고 '강사별과 강의준비'에서 각각 매우 유의하였다($P < 0.001$).
2. 강의 이해도에 대한 조사에서 '잘되었다' 이상이 '강의시간의 적절성'에서 190(63.3%)와 '강의난이도 적절성'에서 149(49.7%)로 각기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는 '강사와 강의시간의 적절성' ($P < 0.05$)과 '코스와 강의난이도 적절성' ($P < 0.01$)에서 각기 유의하였다.
3. 강사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잘되었다' 이상이 '강사의 열의성'에서 194(64.7%)와 '강의교재 적합성'에서 198(66.8%)로 각기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는 '성별과 강사의 열의도' ($P < 0.01$)와 '강사와 강의교재 적합성' ($P < 0.05$)로 각기 유의하였다.
4. 강의 환경에 대한 조사에서 '잘되었다' 이상이 '강의환경의 적합성'에서 102(37.4%)와 '시청각자료 적합성' 193(64.3%)으로 각기 나타났고, 통계적으로는 '지역과 시청각자료 적합성'에서 유의하였다($P < 0.05$).
5. 강의의 실용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좋다' 이상이 '임상에 도움'이 172(54.7%)와 '학습태도' 209(69.6%)으로 각기 나타났다.

위와같은 결과로써 대한정형물리치료학회에서 실시하는 정형물리치료의 교육은 회원들에게 성공적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었고, 이에 정형물리치료학회의 임원들은 더욱 큰 책임감으로 교육과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함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이호배, 이성근, 배수현 : 기초통계분석, 데이터리서치, 서울, p.21-p.139, 1994.
2. 최종석 외 3인 : 통계학, 정의사, 서울, p.9-p.310, 1989.
3. 한성현, 신동철 : 보건과학연구방법론, 수문사, 서울, p.16-p.122, 1996.
4. 홍경선 : SAS 와 통계자료분석, 탐진, 서울, p.162-p.271, 1996.

- ABSTRACT -

Evaluation of lecture delivered by O.M.P.T.
on the subject of Orthopedic Physical Therapy

*Dept. of Physical Therapy, Kim Cheon College.
Kim Cheon, Korea.*

Kim Keun Jo

This Evaluation was made through 300 persons who had attended the lecture organized by O.M.P.T.(Orthopeadic Manual Physical Therapy) during the period of January to June 1998 in Seoul and in other six(6) cities.

The result of evaluation is summarized as follows :

1. With regard to general satisfaction with lecture, it was evaluated as 'more than good' by 204 person(68.0%) for 'Preparation for lecture of lecturer' and by 194 person (64.7%) for 'Teaching Method'.
Statistically, the significance was largely given to 'Place and Preparation for Lecture of Lecturer' and 'Preparation for Lecture as per each Lecturer' ($P < 0.001$).
2. With regard to understanding of lecture, it was evaluated as 'more then good' by 190 persons(63.3%) for 'Appropriate Teaching Hours' and by 149 persons(49.7%) for 'Appropriate Degree of Lecture Difficulties'.
Statistically, the singnificance was largely given to 'Lecturer and Appropriateness of Teaching Hours' ($P < 0.05$) and 'Appropriateness of Teaching Courses and Degree of Lecture Difficulties' ($P < 0.01$).
3. With regard to satisfaction with lecture's performance, it was evaluated as 'more than good' by 194 persons(64.7%) for 'Lecturer's Zeal for Teaching' and by 198 persons(66.8%) for 'Suitability of Textbook'.
Statistically, the significance was largely given to 'Sex Distinction and Lectuer's Zeal for Teaching' ($P < 0.01$) and 'Lecturer and Suitability of Textbook' ($P < 0.05$).

4. With regard to teaching environment, it was evaluated as 'more than good' by 102 persons(37.4%) for 'Appropriateness of Teaching Environment' and by 193 persons(64.3%) for 'Provision of Appropriate Audio-Visual Aids for Teaching'. Statistically, the significance was largely given to 'Place and Appropriateness of audio-visual aids for Teaching' ($P<0.05$).
5. With regard to practical use of lecture, it was evaluated as 'more than good' by 172 persons(54.7%) for 'Usefulness to clinical demonstration' and by 209 person(69.6%) for 'Attitude towards study' .

With the result of evaluation made as in the above, we are able to see that the education of orthopedic physical therapy which is organized by Orthpedic Physical Therapy Society of Korea, is being successfully conducted and evaluated by its members, and furthermore the staff of this society has to make his best endeavours for the growth of this society and for the development of this education.

대한정형률리치료학회 강의 평가서

코스. 작성일 : 199 년 월 일

강사명 :

성별 :

연령 :

근무처 : 의원 · 병원 · 준종합 · 종합
임상경력 :

본 설문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다음 Course를 위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충실히 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강의 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짧다 ② 짧다 ③ 적절하다 ④ 길다 ⑤ 너무길다

2. 강사진의 강의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 ① 매우 잘되었다 ② 잘되었다 ③ 보통이다 ④ 안되었다 ⑤ 매우 안되었다

3. 강사의 교수법이 내용을 전달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매우 그렇지않다

4. 강사는 열의를 가지고 강의에 임하였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매우 그렇지않다

5. 강의의 난이도와 진행속도는 적절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매우 그렇지않다

6. 강의실 환경 및 시설은 어떻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매우 그렇지않다

7. 강의교재는 강의 내용에 적합하게 선택되었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매우 그렇지않다

8. 강사는 (강의안, 시청각 자료, 토론 등) 학습내용을 전달하기에 적절하였습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매우 그렇지않다

9. Course 참석후 임상에서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매우 그렇지않다

10. 회원들의 학습태도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않다 ⑤ 매우 그렇지않다

11. 본 Course에 대해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